

2022년 옴저버빌리티 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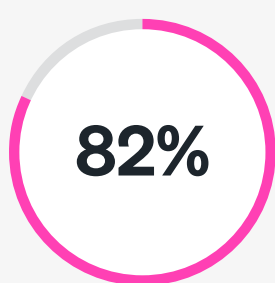
옴저버빌리티(o11y)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해 뉴렐릭이 Enterprise Technology Research(ETR)와 협력해 2차 연례 보고서인 옴저버빌리티 전망을 발표했습니다. 올해 ETR은 북미(31%), 유럽(44%), 아시아 태평양(25%)의 14개국에서 1,6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응답자 비율은 최고 경영진과 일선 관리자를 포함해 실무자 65%와 IT 의사결정자(ITDM) 35%입니다. 다음은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.

보고서 전문과 조사 방법을 확인해보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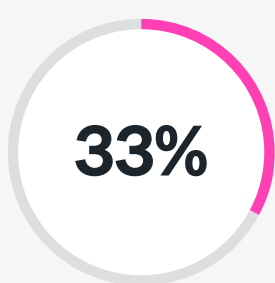


도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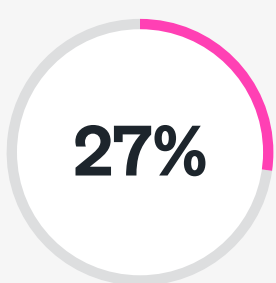
모니터링은 단편화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조직은 현재 전체 기술 스택을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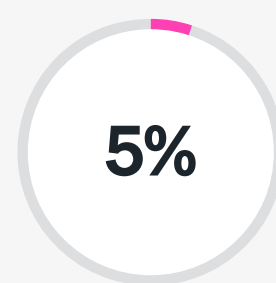
4개 이상의 옴저버빌리티 툴을 사용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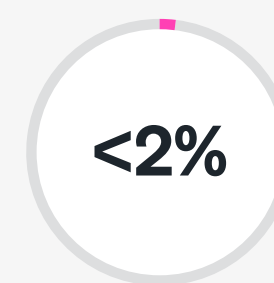
아직도 수동으로, 또는 불만이 제기된 후에 중단을 감지합니다.



풀스택 옴저버빌리티를 확보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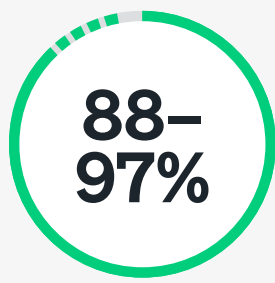
성숙한 옴저버빌리티 사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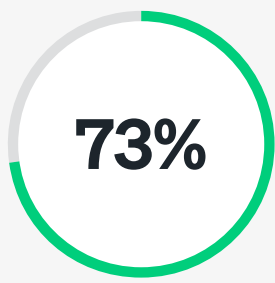
단일한 옴저버빌리티 툴을 사용합니다.

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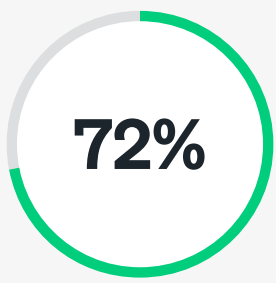
옴저버빌리티는 서비스 레벨 메트릭을 향상시킵니다. 조직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으며 더 많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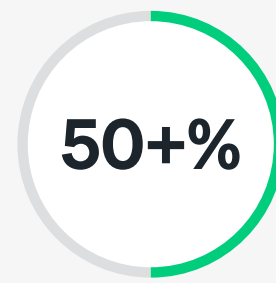
2025년까지 17개의 서로 다른 옴저버빌리티 기능을 배포해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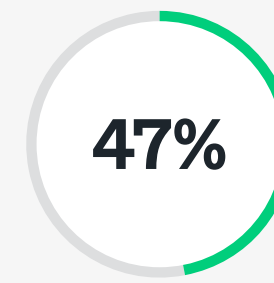
고위 경영진은 옴저버빌리티의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.



내년에 옴저버빌리티 예산을 늘리거나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


옴저버빌리티가 핵심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한다고 말합니다.



단일한 통합 옴저버빌리티 플랫폼을 선호합니다.

풀스택 옴저버빌리티의 우선순위 지정/달성



보다 적은 서비스 중단



더 빠른 평균탐지시간 (MTT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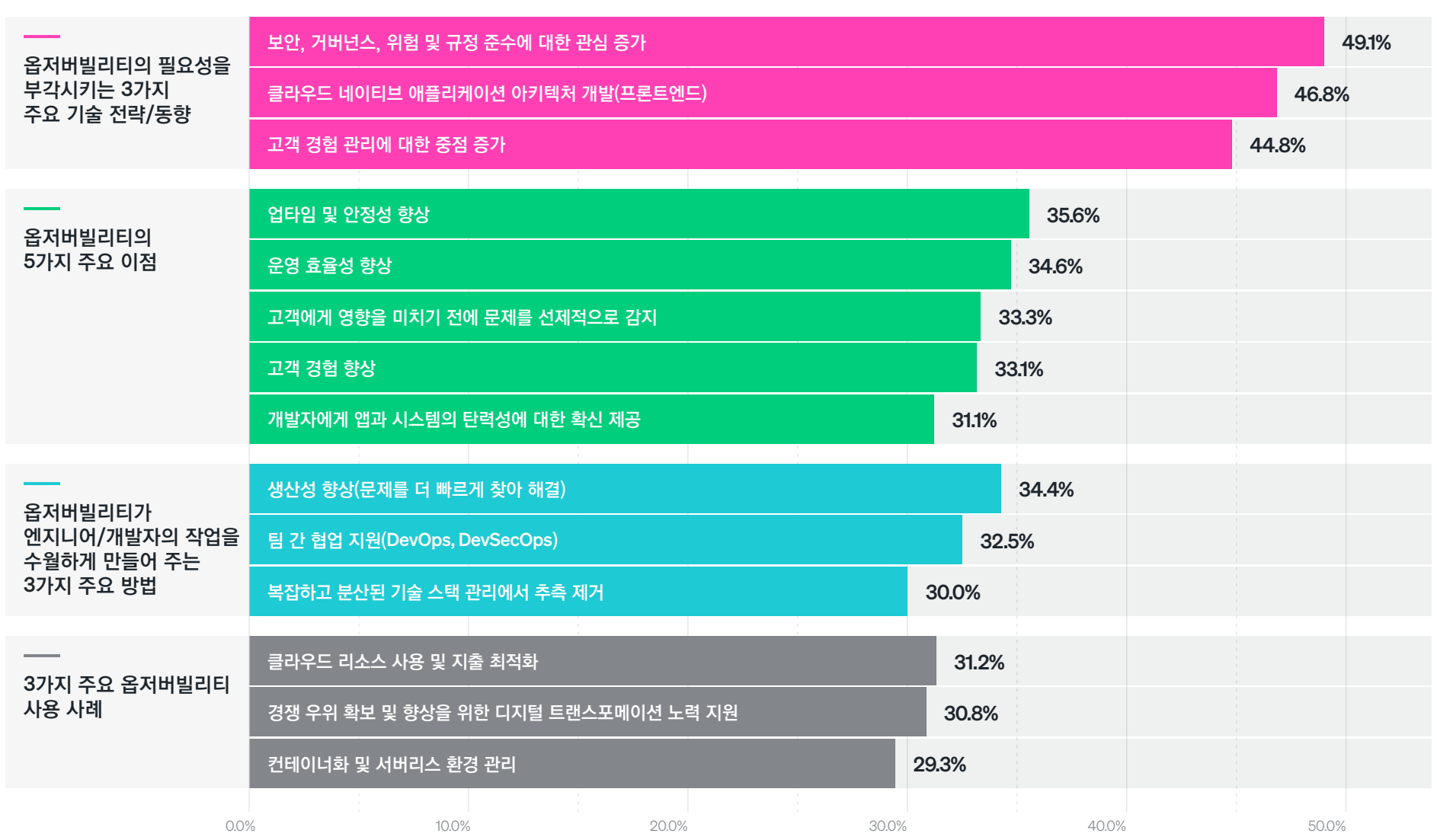
더 빠른 평균해결시간 (MTTR)



“옴저버빌리티, 모니터링 및 정보 보안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고 공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하나의 툴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.”

—대규모 리테일 기업의 SVP 및 CTO

주요 인사이트



보고서 전문 보기